KIA 개막 6연승·윤석민 3세이브 KIA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개막 6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연승의 원동력 중 하나인 마무리 윤석민(왼쪽 끝)이 5일 수원 kt전 9회 마운드에 올라 시즌 3세이브째를 올린 뒤 포수 이성우(왼쪽 2번째)와 기뻐하고 있다.

야신 삼킨 달

김성근-김경문, 4년 만에 재격돌 현장

2011년 이후 첫 맞대결…팬들 이목 집중
김경문 감독, 희생번트 작전 적중 2연승
배영수 카드까지 꺼낸 김성근 감독 완패

한화와 NC가 3~5일 마산구장에서 시즌 첫 맞대결을 펼쳤다. 한화 김성근(73) 감독과 NC 김경문(57) 감독의 격돌이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2011년 6월 김경문 감독은 두산 사령탑에서 자진 사퇴했고, 8월에는 김성근 감독이 "시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SK 구단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로부터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둘 다 다른 팀 지휘봉을 잡고 있고, 전력 역시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전혀 다른 색깔의 야구로 명승부를 펼치면서 야구의 부흥을 이끈 이들이기에, 팬들은 '야신'과 '달'의 재회를 흥미진진한 눈길로 바라봤다.

한화 김성근 감독

NC 김경문 감독

●말 하나도 조심스러운 사제지간

두 사령탑은 조심스러워했다. 상대팀 평가에 대해선 가급적 말을 삼가는 분위기였다.

3일 첫 경기는 NC의 11-6 승리. 한화는 2이닝(2실점 1자책점) 만에 물러난 선발투수 송은범을 포함해 무려 8명의 투수를 마운드에 올렸다. 4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그리고 5일 한화 선발투수는 1일 대전 두산전에서 '15구 연속 볼'로 화제가 된 유창식. 여차하면 조기강판도 배제할 수 없었다. 1군 엔트리에는 있지만 시즌 개막 후 등에 담 증세가 생겨 등판을 미룬 배영수가 한화 2번째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김경문 감독은 "일단 선발투수를 공략해야 두 번째 투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 앞 투수만 신경 쓰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화로선 NC의 '발야구'가 신경 쓰였다. 경기 전 김성근 감독도 NC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뛰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3일 경기에서 NC가 도루 성공만 4개를 기록하는 등 '발야구'로 한화 배터리와 내야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제자의 완승으로 끝난 첫 만남

그러나 2번째 승부는 예상과 다르게 흘렀다. 유창식이 제구력을 잡으며 5회까지 1실점으로 버티며 한화의 '벌떼 마운드'를 보류시켰고, NC도 2회 테임즈의 솔로홈런을 빼면 타선이 침묵해 '뛰는 야구'를 펼칠 수 없었다. 그 사이 NC 선발 손민한도 1실점(비자책)으로 역투했다.

승부가 기운 것은 6회말. NC는 김태군과 김종호의 연속안타로 무사 1·2루 기회를 잡았다. 여기서 김경문 감독은 과거 스타일과는 달리 박민우에게 희생번트 작전을 내렸다. 이어 이종욱의 적시타로 2-1로 앞서나갔고, 계속된 2사 1·3루서 테임즈의 3점홈런으로 5-1로 달아났다. 김성근 감독은 유창식이 지석훈에게 안타를 내주자 배영수를 올렸다. 배영수로선 한화 이적 후 첫 등판. 그런데 이호준이 좌월 2점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NC의 9-2 대승.

김성근 감독과 4년 만에 만나 2연승으로 출발한 김경문 감독은 경기 후 시즌 첫 승을 올린 손민한과 타선을 칭찬했다. 김성근 감독은 아무 말 없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양 팀이 다시 만나는 것은 17~19일, 장소는 대전이다.

마산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 빅마우스

●kt전에 맞춘 게 아니에요. (SK 김용희 감독. 통신업계 라이벌인 kt와의 7~9일 문학 3연전에 팀의 실질적 1~3선발인 김광현~메릴 켈리~트래비스 밴와트를 내세우는 데 대해)

●비 덕분에. (KIA 김기태 감독. 개막 이후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팀 기다리나? (한화 김성근 감독. 신생팀 kt가 4일까지 6연패로 첫 승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화제에 오르자 제자인 조범현 kt 감독이 마음고생을 하겠다며)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공이 자꾸 방망이에 와서 맞아. (NC 이호준. 4일까지 시즌 초반이지만 타격 1위에 올라있어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하자 자신도 놀라고 있다며)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현장리포트 |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첫 날

"푹 자고 와서 좋은데, 가을엔 글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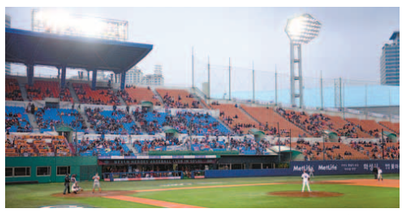
"다음 상대팀이라 두산 경기 보고 있었어요."

SK-넥센전이 열린 5일 목동구장. 넥센 염경엽 감독의 방 TV에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사직 두산-롯데전이 중계되고 있었다. 염 감독은 "두산 경기도 미리 볼 수 있고 좋다"며 활짝 웃었다.

이날 목동에선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처음 펼쳐졌다. 오후 2시에 잡힌 다른 4개 구장 경기들과 달리 목동에선 3시간 늦게 경기가 시작됐다. 홈팀 넥센 선수들은 오후 2시 넘어서 목동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원정팀 SK도 오후 3시30분 넘어 경기장에 나왔다.

KBO는 올 시즌부터 야구팬들에게 좀더 넓은 야구 시청권을 제공하기 위해 4월과 5월, 그리고 9월에 한해 매주 일요일 1경기씩을 오후 5시에 편성했다. 4경기를 종전처럼 오후 2시에 시작하되 1경기만 변화를 준 것이다.

현장에선 반기는 목소리가 앞섰다. 염 감독은 "4일 경기도 지고 잠을 못 잤는데 오후 5시 경기라서 훨씬 편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2시는 리듬도 안 맞고, 전날 저녁 경기를 치른 선수들에게 피곤하다. 팬들에게 피해가 없다면 오후 5시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SK 김용희 감독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선수들이 밤 경기를 치르고 곧장 낮 경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 야구팬을 위한 시즌 운영은 반길 만하다"고 밝혔다.



SK와 넥센이 5일 목동구장에서 올 시즌 첫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를 치르고 있다.
목동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그러나 김 감독은 한발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4~5월에는 얼마든지 일요일 저녁 경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순위싸움에 민감한 9월에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 경기 민감한 상황에서 "선수 기용과 투수운용을 놓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9월만큼은 동일시간대 경기를 편성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프런트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뒤따른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야구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도 이해할 일이지만 구단은 홈구장을 찾는 팬이 우선이다. 월요일 출근을 앞둔 팬들이 일요일 저녁 얼마나 경기를 보러 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목동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박계현 "아나운서 호명 듣고 가려 했는데…"

첫 스피드업 규정 위반…제재금 20만원

"장내 아나운서의 호명을 듣고 가려고 했죠." SK 내야수 박계현(23·사진)은 5일 목동 넥센전에 앞서 전날 경기 장면을 떠올리며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전날 첫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새로 신설된 스피드업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2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박계현은 4일 넥센전에 8번 2루수로 선발출전했다. 10-4로 앞선 9회초 선두타자로 타석에 나설 준비를 했다. 마침 넥센이 투수를 마정길에서 손승락으로 교체하면서 박계현의 착각도 더해졌다. 대기타석에서 평소 습관대로 방망이를 휘두르며 예열했다. 장내 아나운서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광판과 1·3루 덕아웃에 설치된 시계는 하염없이 흘렀다.

나광남 주심은 공수교대 제한시간인 2분을 앞두고 박계현을 2차례 불렀다. 타석에 들어오라는 지시였다. 그러나 박계현은 2분을 조금 넘겼고, 나 주심은 규정 위반을 설명했다. 5일 SK 관계자는 "박계현이 이닝 시작 후 장내 아나운서 호명이나 BGM(등장음악) 시작 이후 10초 이내에 들어서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박계현도 "스피드업 규정을 이해하는 타자가 많지 않다. 이번에 알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KBO는 지난달 16일 경기촉진위원회를 열고 스피드업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타자가 타석에서 두발을 빼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던 것을 20만원 제재로 수정했다. 이어 공수교대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해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닝교대 후 첫 타자는 BGM 제한시간(10초)과 관계없이 공수교대시간(2분)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계현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다. SK 김용희 감독과 넥센 염경엽 감독은 "선수들에게 학습효과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동 | 박상준 기자

넥센 김민성, 발목 부상…1군 엔트리 말소

넥센 내야수 김민성이 오른 발목 부상으로 5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민성은 4일 목동 SK전 4회말 스나이더의 유격수 직선타 때 1루로 귀루하다가 베이스에 발목이 걸리면서 다친 뒤 윤석민으로 교체됐다. 김민성을 대신해 서동욱이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